

완도 '관광객 1000만 시대' 도약 준비 박차

'빅 데이터 분석' 지난해 말 기준 완도 관광객 연 568만명 방문 통신·카드·SNS 등 데이터 활용...관광 분석·활성화 방안 마련

지난해 해양치유의 명소, 완도를 방문한 관광객이 568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완도군에 따르면 KT, 고려대 디지털혁신연구센터 등과 관·산·학 협력을 통해 '빅 데이터 기반 관광 분석'을 시행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 완도군을 방문한 관광객이 568만여명으로 집계됐다.

관광객은 8월에 가장 많았고 5월과 9월, 10월에도 집중됐던 것으로 분석됐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관광객이 늘어

난 이유는 쾌적하고 안전한 여행을 선호하는 트렌드에 따라 완도군이 추진해 온 해양치유 체험프로그램이 인기를 끌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관광객 재방문율도 매년 증가하면서 향후 체류형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한 중요한 지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관광객 비중은 MZ 세대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관광 소비는 40대 이상 중장년층이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광 소비 규모는 지난해 기준 653억여원으로 전년 대비 10.1% 증

가했다.

업종별로는 식음료, 쇼핑 등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숙박과 레저, 대중교통 부문은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체류형 관광 인프라 확충과 관광 트렌드에 맞는 관광 소비자 발굴이 시급하다는 반응이다.

관광객은 완도 인근 도시인 목포시와 광주에서 당일 여행 관광객이 많았으며 수도권 관광객의 방문 비중도 해마다 증가했다.

축제의 경우 장보고수산물축제는

지역 내 40~50대 중장년층 소비에 의한 경제적인 효과가 있고 청산도 슬로걸기축제에는 수도권 등 원거리 관광객 유치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완도군은 이번 분석결과를 지표로 체류형 관광객을 위한 기반 시설 조성에 집중 투자하는 한편, MZ 세대를 위한 숙박시설 구축이나 웰니스 체험 프로그램 확대, SNS 관광 마케팅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완도군 관계자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완도 관광에 대한 진단과 정책 방향이 나온 만큼 이를 토대로 관광산업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꾀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 발굴해 시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완도=이두식 기자

강진, 서순철 신임 부군수 취임

"강진의 도약 위해 최선 다할 것"



강진군은 전남도 인사발령에 따라, 제30대 강진군 신임 부군수로 서순철 부군수가 취임했다.

서순철 신임 부군수는 지난 26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수행에 돌입했다.

취임식에서는 공직체계에 참여 중인 대학생 2명이 강진군민이 된 부군수에게 환영의 선물로 '강진군민증'과 다산의 대표 저서를 새겨진 특화 먹거리 '강진책빵'을 전달했다. 시대를 앞서간 인물 다산 정약용의 창고와 정림정신을 바탕으로 강진군정을 이끌어 주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서순철 부군수는 "1989년 무안군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해 전남도 안전총괄팀장, 에너지 신산업과장, 농업정책과장 등 전남도의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행정전문가다."

서순철 부군수는 "앞서가는 정책으로 주목받고 있는 강진군에서 함께 근무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다산의 시대정신과 영랑의 감성을 마음에 품고 강진의 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진=한홍수 기자

해남, 취약계층 5631명에 난방비 3억8000만원 지원

해남군은 동절기 한파와 난방비 폭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취약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도록 난방비를 긴급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저소득 독거노인과 은둔형 위기가구 등 취약계층 5631명에 예비비를 긴급 투입해 가구당 10만~20만원씩 총 3억8000만원의 난방비를 지원한다.

특히 정부와 전남도에서 마련한 겨울철 취약계층 난방비 특별지원 대책과 협력해 에너지 바우처를 지원 받고 있는 취약계층 2793명뿐만 아니라 저소득 독거노인과 한부모 가족 등에도 지원을 실시한다.

저소득 독거노인 2628명에게는 가구당 20만원, 한부모 가족 2107구에 가구당 20만원 지원하는 등 지원 대상의 폭을 넓혔다.

해남군은 정부와 전남도에서 지원한 대상자 외에도 중장년층 홀로사는 가구와 은둔형 위기가구에 대해서도 별도 지원할 계획이다.

사회복지시설 등 취약시설에는 이미 지원된 운영비를 난방비에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병행관 관수는 "연일 계속되는 한파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난방비를 집중 지원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앞으로도 복지에서 소외되는 군민이 없도록 구석구석 잘 살펴 안전하고 행복한 으뜸 해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해남=김동주 기자

영암 '전남도 제1호 K-웰니스 도시' 선정

전국최초 '산림치유' 특화도시 선정

영암군이 2023년 전남도 제1호 'K-웰니스 도시'로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

'K-웰니스 도시'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웰니스 도시임을 민간 대표 웰니스 단체인 (사)한국웰니스산업협회가 인증하는 사업으로, 신청 지자체의 웰니스산업 육성 의지 및 지역주민의 참여도 등 총 16개 분야를 전문가의 심사로 선정하며 영암군은 16개의 특화분야 중 전국 최초로 산림치유 부문에 선정되며 그 가치를 인정받았다.

해당 사업은 2019년부터 시행되었으나 2020년 코로나로 중단되었다가 2021년 재개하였으며, 전국 기초자

치단체를 대상으로 웰니스 관련 인프라 및 성과를 점검하고 미래의 웰니스산업 육성계획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대표도시를 선정하고 있다.

'K-웰니스 도시'로 선정된 지자체는 3년간 해당 권역을 대표하는 웰니스 도시로서의 권위를 가지며, 웰니스협회는 'K-웰니스 푸드 & 투어리즘 페어', '베트남 K-웰니스 라이프스타일 엑스포' 등 국내외 전시회 및 컨퍼런스 개최 시 'K-웰니스 도시' 선정 지자체를 우선적으로 홍보한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삶의 휴식, 건강하고 행복한 도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날로 커지고 있다. 우리군이



추구하고 있는 친환경 힐링도시가 미래도시가 나아가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월출산 스테이션 조성사업, 숲속 웰니스 설치사업, 월출산 생태경관사업 등 산림치유 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대한민국 대표 웰니스산업 특화도시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밝혔다.

/영암=김형두 기자

무안, 생분해성 멀칭 농자재 9500만원 지원

내달 13일까지 신청

무안군이 발농업에서 효과적으로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는 생분해성 멀칭 농자재를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생분해성 멀칭 농자재는 흙이나 물속에 있는 미생물·효소·박테리아 등에 의해 물과 이산화탄소로 분해되는 자연순환 멀칭 농자재를 말하며 필름, 종이, 액상으로 3가지 형태의 제품이 생산되고 있다.

현재 일반비닐멀칭은 수확작업 기계화를 어렵게 하고 폐비닐 수거를 위한 노동력과 처리비용이 소요되며 토양 및 환경오염 등의 문제를 안고 있는 반면, 생분해성 멀칭 농자재를 사용할 경우 비닐멀칭의 효과와

더불어 작기 동안 토양에서 생분해되어 노동력을 절감하고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농업인들의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

사업대상은 마늘·양파 등 노지에서 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농업법인으로 농가별 최대 2ha 한도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해당 읍·면사무소 산입팀에 2월 13일까지 사업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보조사업으로 구입할 수 있는 제품은 녹색제품정보시스템 환경표지 인증 또는 유기농업자재 인증을 받은 제품이 가능하며 멀칭종이 또는 액상멀칭제의 경우 공인시험 연구기관의 생분해 시험 성적서를 발급 받은 제품도 구입이 가능하다.

/무안=박태연 기자

신안~목포역~버스터미널 간 광역버스 임시 운행

기차 이용 편의 제공... 관광객 증가 예상

신안군은 목포시비상 수송기간 종료 시까지 목포버스터미널~목포역 노선을 내달 1일부터 운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안군과 목포시는 지난 20일 목포역을 경유하는 신안군 광역버스(1004호, 20004호, 3004호) 운행에 전격 협의했다.

이는 2019년 천사대교(암태~암해) 개통과 함께, 신안~목포 간 대중교통 운행은 당연한 시대적 요구 사

편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그동안 목포시 시내 버스 운행 중단으로 시민들의 교통 불편이 심한 상황에서 교통 불편 일부 해소는 물론 KTX를 타고 신안군 관광이 편리해져 관광객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신안~목포(버스터미널) 간 광역버스는 신안군 직영 버스로 목포역을 경유하여 버스터미널까지 운행한다. 7대의 광역버스가 1일 21회 운행하며 목포역~터미널 구간 요금은 무료이다.

/신안=박정태 기자

향이었지만, 운수업체 협의 불발로 지금까지 목포 버스터미널까지만 운행해 왔었다.

이에 양 시·군의 상생발전 저해 및 대교 개통의 의미를 살리지 못하는 이유로 신안에서 목포역까지 버스 연장 운행의 끊임없는 요구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목포시와 협의를 통해 신안군이 목포역까지 광역버스를 운행할 수 있게 되어 주민들의 KTX 이용 편리 및 교통 불

목포, 내일 자원회수시설 건립 2차 시민공청회

소각방식 등 설명...방청객 질의·응답

목포시는 오는 31일 오후 2시 김대중노벨평화상 기념관 다목적강당에서 자원회수(소각)시설 건립사업에 대한 2차 시민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 해 12월 개최한 1차에 이어 자원회수(소각)시설 건립사업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 시민 공감대 형성 등을 위해 마련했다.

초당대학교 김판진 경영학과 교수가 주재하고 각 분야 전문가, 소각방

식별 시공사 4명이 패널로 참여해 사업방식(재정, 민간투자), 소각처리 방식(스토커, 열분해) 운영 및 효율성, 대기오염물질 배출 위해도 감소를 위한 대기오염물질저감시설 등을 발표한 후 질의응답의 시간을 진행한다.

시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 소각방식의 안전성과 건강권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자원회수(소각)시설 건립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목포=김근호 기자



문화관광의 중심지

기외 고장 영암! 문화관광 중심도시!

평일 밤 한
일 상 속
남다른 여행

여행을 떠난다는건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방법입니다

월출산국립공원 / 왕인문화축제 / 월출산 기찻길 / 구름전통마을
월출산 국화축제 / 마한축제 / 기찻길 / 한국로트트가요센터